

*성함 : 이OO

*합격환 시험 : 2019년 국가직 일반행정직(우정사업본부), 서울시 일반행정직

1. 시험 지원 동기

이렇다하게 잘하는 것도 없고, 머리도 좋지 않고, 해왔던 건 공부뿐이라 할 수 있는 걸 찾다보니 공무원이 적합해서 직업으로 삼기로 결정해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과목별 공부 방법

-**국어:** 문법, 독해, 어휘 중 문법에 제일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문법 문제는 모든 수험생들이 기본적으로 다 맞힐 거라고 생각했고, 또 문법 문제를 후딱 풀고 시간 아껴서 독해 문제에 시간 투자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독해 문제를 정말 싫어해서 독해 공부를 일부러 더 피해 시험 보기 전에 버락치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독해는 따로 공부한다기보다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휘는 따로 혼자 외우는 것보다는 학원에서 아침에 보는 어휘 테스트를 준비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휘 책은 다 못 외울 걸 알았기에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자는 象이나 像, 古나 故 등 바뀌도 잘 모르는 헛갈리는 것들을 시험보기 몇 주 전에 따로 정리해서 보는 정도로 했습니다. 고유어나 한자도 예전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이번 국가직과 서울시 모두 어휘 문제가 나오지 않았으니 과도하게 시간 쏟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제일 선생님의 덕을 많이 본 과목입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는 영어 문법의 체계가 잡히지 않아 감으로 풀곤 했는데, 오동훈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확실히 체계가 잡혔습니다. 수업도 수업이지만 일단 책이 정리가 너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책 내용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문법 파트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단어 암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보는 모의고사나 수업시간에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손바닥만 한 수첩에 적고 아침에 경북구역에서 학원까지 걸어가는 길에(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외웠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을 사용했는데, 단어 뜻에 한글도 적고 단어의 뉘앙스나 쓰이는 상황 등을 알고 싶어서 영어 뜻도 썼습니다만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만드신 1631인가 하는 단어책이 있는데 그것만 외우시면 어휘 문제에서 막힐 것은 없습니다. 어휘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매일 보면서 외우고 되새김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외우고 뒤돌면 잊어버리니까요.

-**한국사:** 한국사는 웬만하면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워낙 양이 많기도 하고, 이 과목이 특히 문제를 굉장히 치사하게 내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다 암기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교재도 7급과 9급 공통이라 사소한 것들까지 다 나와 있으니 그것들도 모두 외웠습니다. '이런 것도 외워야 해?' 하는 것들도 다 외웠습니다. 다 시험에 나와서 책에 쓰인 것이니까요. 특히 한국사는 의식의 흐름대로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서 다른 공부를 하다가도 글에 발해가 나왔다 하면 한국사에서 발해 파트를 머릿속에서 쪽 읊어보고 막히는 게 있으면 바로 책 펴서 모르는 부분 암기하고 했습니다. 어떤 공부든 내가 모르는 걸 알고 바로바로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는 기출도 7급까지 다 풀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소한 것까지 다 외우면 한국사는 7급 문제라도 90점 밑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행정학:** 이과인데다가 고등학교 때 사회 과목을 한국사 빼고는 하나도 듣지 않아서 제일 낮설고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한 5~6

달은 설렁설렁하고 남은 4,5개월 동안 빠르게 했습니다(2018년까지는 시험 봐도 반타작했습니다). 행정학은 그냥 꾸준히 해야 합니다. 벼락치기 하면 외울 게 너무 많아서 다른 과목에 투자할 시간이 모자랍니다. 외울 거 많다고 저처럼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공부하세요.

-수학: 수학은 수능에 비하면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수능으로 치면 쉬운 3점짜리 문제들이기 때문에 공식만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따로 공부할 시간을 잡지는 않고 다른 과목들 공부하다가 하기 싫을 때 머리 식힐 겸 풀었습니다. 시험 볼 때 계산 실수해서 허무하게 틀리지 않도록(계산 실수로 틀리면 이렇게 원통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험 보기 1~2주 전부터는 기출을 뽑아다가 시험 보는 시간에 맞춰서 풀었습니다. 미리 시험 시간에 익숙해지는 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종로스파르타 장점

제가 종로스파르타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가 현장강의를 듣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생님과 마주보고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인터넷 강의도 들을 수는 있지만 종로스파르타의 현장 강의에서는 과목마다 선생님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다행히 저한테는 그곳의 모든 선생님들의 수업이 잘 맞았습니다). 저는 현장 강의만으로 충분해서 인터넷 강의를 듣지는 않았지만 원하는 인터넷 강의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수업시간에는 아무래도 학생이 (제가 상상하는 노량진만큼) 많지 않아서 수업 중 쉬는 시간이나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께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기에도 서로에게 부담이 덜 가는 것 같아서 질문하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치르는 과목별 모의고사와 영어·국어 어휘 시험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어휘는 가르침을 받는다기보다는 스스로 해야 하는 부분이 큰데, 아침마다 강제적으로 외우게 하니 좋았습니다. 또 처음 등록해서 끝날 때까지 새로운 어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양을 두고 돌려서 내기 때문에 복습에도 좋았습니다(물론 공부하지 않으면 볼 때마다 새롭겠지만요).

자습실이 깨끗하고 너무 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또 사람이 엄청 많지 않아서 제가 있던 자습실에선 웬만하면 한 자리씩 건너뛰어 앉아서 옆이 비니까 신경이 덜 쓰여서 그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물론 붙어 앉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소수입니다.)

또 학원비를 한 번에 내니 두세 달에 한 번씩 개설되는 강의나 매달 보는 모의고사의 비용을 계산하지 않아도 돼서 편합니다(책값은 계산해야합니다).

4. 슬럼프 극복 방법

저는 슬럼프가 와도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앓았다기보다는 극복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냥 껴안고 같이 갔습니다. 2018년 7월에 등록하고 나서 9~12월, 2019년 3월부터 서울시 불 때까지 슬럼프가 왔는데 1차 슬럼프는 7,8월에 너무 열심히 달리니까 과부하가 와서 일찍 지쳐서 왔습니다. 2차 슬럼프는 공부를 해도 실력이 예전처럼 눈에 띄게 늘지 않는데 시간은 많이 남으니 공부하기가 싫어서 왔습니다. 1차 때 내가 어찌해도 슬럼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2차 때는 그냥 “그래. 또 올 줄 알았다.” 하고 시험 보는 날까지 안고 갔습니다. 슬럼프가 왔다고 학원을 빠지지 않는 않았습니다(매일 갔습니다). 대신 공부하다가

오늘은 진짜 날이 아니다 싶으면 경복궁 가서 가이드 따라다니면서 한 바퀴 돌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가끔 기분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면 문제없지만 방법을 모른다면 벗어나려는 것을 일찍 포기해 버리는 것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5. 면접시험 준비 방법

학원에서 알려주셔서 노량진 박문각에서 정준호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들었는데 바로 스터디를 만들지는 않고 면접 보기 1~2주 전에 같은 시간에 수업 듣는 분들 이랑(저 포함 6명) 스터디를 만들었습니다. 수업 끝나고 2번, 면접 보기 하루 전에 시간 내서 또 만나서 같이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서로 압박 질문을 해주면서 실전에서 압박 질문이 오더라도 대답은 못 할지언정 당황하지는 않도록 그런 질문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질문에 답하는 것보다 자기기술서를 쓰는 것에 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아직 대학 졸업도 안 한데다가 아싸로 지내다보니 경험이랄 게 없어서 ‘~~한 경험을 기술하시오.’라고 나올 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질문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경험을 어떻게든 짜내서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바로 조금씩 변형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기술서는 면접관이 보는 저희의 첫인상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깔끔하게 끝까지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가족 및 고마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집은 가까운 편이지만 걷기라도 하려고 아침마다 경복궁역에서 내려 학원까지 걸어왔습니다. 8시까지야 와야 했기 때문에 아침을 6시에는 먹었는데 가족 모두가 제 시간에 맞춰서 같이 식사를 해준 것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게 저만이 아니었음을 알기에 기다려준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7.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학원에서 한 달에 한 번 보는 모의고사 성적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저도 학원 모의고사에서 국어 잘 보면 90, 보통은 80~85점이었는데 이번 국가직, 서울시 모두 국어 하나 틀렸습니다. 학원 모의고사 보고 틀리면 ‘모르는 거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다. 시험에서 널 안 만나서 다행이다’ 하고 공부하세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도 몰랐던 부분을 발견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모의고사의 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은 거 동그라미 치고 흐뭇해하지 마시고 틀린 것만 잔인하게 작대기 긁고 그것들 줄일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쯤하면 충분한 것 같은데. 붙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더 공부하세요. 모두 저와 같지는 않겠지만 제 경험상 어설피게 알 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부할 때는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하시고 본 시험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감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고 모의고사 볼 때는 ‘이거 같은데’라고 하고 흐물흐물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답인 이유, 혹은 이게 답이 아닌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확실히 공부하세요. 시험 볼 때 아무리 봐도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감을 믿고 찍고 고치지 마세요. 가수 싸이 님께서 ‘뉴페이스’에서 말씀하셨죠. 객관식은 첫눈에 찍는 게 답이라고요. 고치면 틀립니다.

저도 됐으니 여러분도 됩니다. 좀만 고생합시다. 파이팅.